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6위, 청소년층 가장 많아

‘사랑의 전화’ 주최 국제세미나서 발표, 위험의 징후 보이면 즉시 관심 기울여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주변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등인데 상대방에게서 이런 기미를 느끼게 되면 일단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고백에 관심을 보이면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껏 얘기를 나누고 나서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상대방을 자살의 위험에서 구하는 방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홍콩, 일본, 영국, 스리랑카 등의 자살현황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현재 국제적 예방 기구로는 국제자살예방협회, BI(Be Friends International) 등이 있으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도이다.

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발표된 자살의 징후를 보면 ‘죽겠다는 으름장이나 충동, 의향을 보이는 진술을 할 때’, ‘자살기도 경험자’,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진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 ‘마치 마지막

의 전화’나 ‘생명의 전화’ 등과 같은 전화상담기관이나 병원을 제외하고는 자살을 예방하는 전문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 행사를 주최한 ‘사랑의 전화’는 자살은 어떤 ‘타업’과 상관 없이 자살의 기미가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발생 할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위험의 징후가 보이면 그 즉시 관심을 기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22.6명으로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높고 그중 청소년(15~24세)의 자살 비율이 28.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4월22일 사랑의 전화(회장 심철호)가 개최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강동성심병원의 석재호 과장(정신과)의 ‘한국의 자살행동 및 통계’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발표된 것이다.

석 과장은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정신의학적 관심을 보인지가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아 자살에 대비한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랑

教師에 뺨맞고네 수치감

여중생自殺

【예천출】교사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은 여중생 3년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해 교육청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경북예천군 Y여중에서姜혜진양(15)이 전날 음악수업시간에 허락을 받지도 않고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李明교사(32)등 2명으로부터 뺨을 맞고 귀가한후 농약을 마셔 6일 만인 7일오후 숨졌다는 것. 경북교육청이『학교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출】교사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은 여중생 3년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해 교육청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경북예천군 Y여중에서姜혜진양(15)이 전날 음악수업시간에 허락을 받지도 않고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李明교사(32)등 2명으로부터 뺨을 맞고 귀가한후 농약을 마셔 6일 만인 7일오후 숨졌다는 것.